

제시안 나오지도 않아 금속 노사 중앙교섭 난기류 20일 5차 교섭, 사측 성원 부족으로 진행 못 해 ... 금속노조 “신뢰 깨질수도”

금속 노사가 사용자 측 교섭위원 참석 저조로 중앙교섭을 진행하지 못했다. 금속노조는 사측에 재발 방지와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20일 오후 5차 중앙교섭을 열기 위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만났다. 사측 교섭위원 12명 중 7명만 참석했다. 지난 4차 교섭에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한 금속노조는 이날 제시안 검토를 예상했으나, 사측 성원 부족으로 불발됐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사용자협의회에 “급하게 모인 것도 아니고 사전 조율해 미리 잡아놓은 노사 간 약속이다. 금속노조 교섭위원들은 바쁘지 않아 지금 교섭장에 나와 있는 줄 아느냐”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장창열 위원장은 “이런 식이면 노사 신뢰는 깨진다. 성원 문제로 소모적인 교섭을 만들고 싶진 않다”라며 “사용자 측은 중앙교섭 중요성을 되새기고 교섭에 성실히 임해달라. 다음에 제시안 놓고 적극적으로 교섭을 펼쳐가자”라고 주문했다.

이날 교섭이 열린 대구의 장세은 지부장은 노사 교섭위원들을 향해 “지난 4차까진 중앙교섭 흐름이 나쁘지 않아 올해 교섭은 오래 걸리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오늘 교섭장에 와서

보니 성급한 판단이었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장세은 지부장은 “올해 금속노조는 온전한 작업중지권을 요구한다. 중대 재해가 계속 일어난다. 결국 사용자들이 안전 문제에 투자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다. 사측에 진지한 태도와 고민을 요구한다. 올해 교섭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죄송하다며 입을 뗐다. 박근형 회장은 “오늘 제시안 검토를 준비했고 교섭 성사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라며 “2개 지역 교섭위원이 오늘 사업장 교섭 참석을 이유로 이 자리에 못 나왔다. 중앙교섭하는 날에 지회 교섭을 잡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금속노조가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을 배려하길 바란다. 협의회는 중앙교섭 발전을 위해 금속노조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6차 중앙교섭을 27일 오후 부산 한국선원센터 회의실에서 연다.

